

2007년도 우리나라 ODA통계(확정치)의 주요 내용

1.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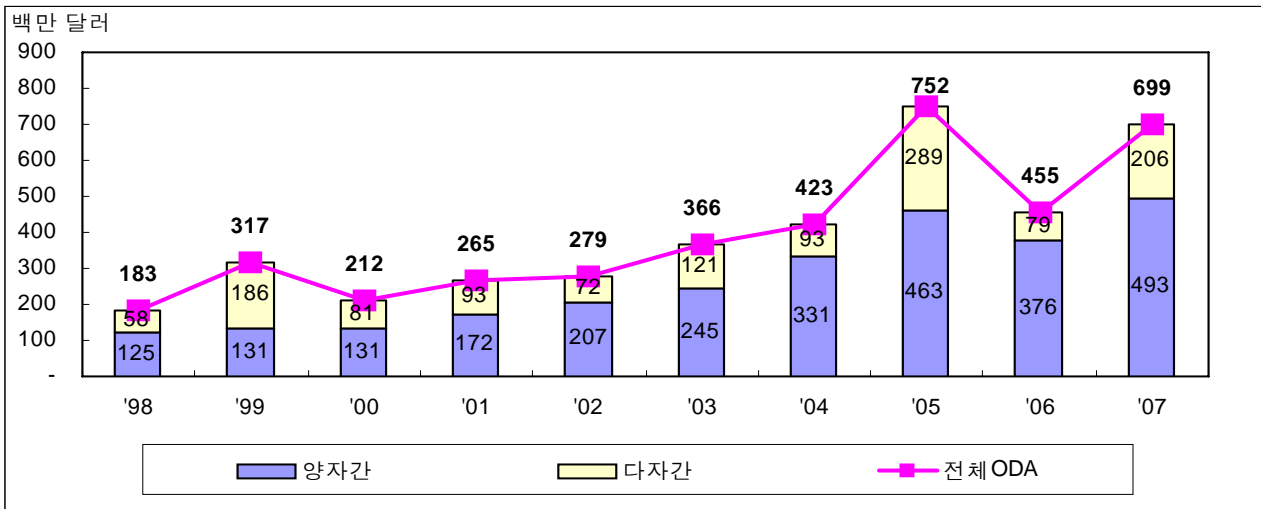
- 2007년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전년대비 53.6% 증가한 6억 9,906만 달러로, 2007년 국민총소득(GNI)의 0.07%를 기록
- '07년 중 다자간 원조의 대폭증가가 주 요인
 - 다자간 원조 증가규모 : 전년대비 159.6%, 1억 2,640만 달러 증가
 - ※ IDA에 대한 출자·출연 규모 : '06년(없음) → '07년(8,233만 달러)
- 양자간 원조도 전년대비 31.2% 증가
 - 무상원조는 전년대비 39.5% 증가, 유상원조는 전년대비 12.9% 증가

2007년도 우리나라 ODA 확정통계 현황 (순지출 기준)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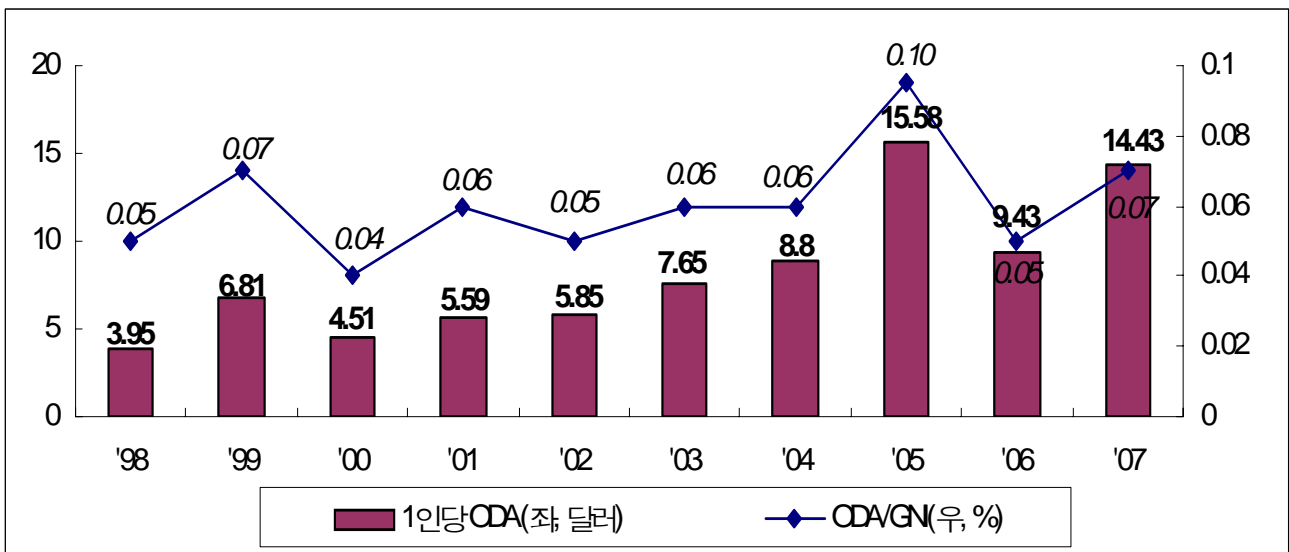
구 성 항 목	2006년	2007년	증감율(%)	비중(%)
ODA (A+B)	455.25	699.06	53.6	100
양자간 ODA (A)	376.06	493.47	31.2	70.6
무상원조	258.95	361.28	39.5	양자중: 73.2
유상원조	117.11	132.19	12.9	양자중: 26.8
다자간 ODA (B)	79.19	205.59	159.6	29.4
ODA/GNI (%)	0.051	0.072	-	-

우리나라 ODA의 연도별 추이 (순지출 기준)



- (양자간 : 다자간) 지원비중은 (71% : 29%)로 전년에 비해 다자간 원조 비중이 12% 포인트 상승
- 2007년도 「ODA/GNI 비율」은 0.07%, 「1인당 ODA」는 14.4달러를 기록
 - ODA/GNI 비율: '06년(0.05%) → '07년(0.07%)
 - 「ODA/GNI 비율」은 '07년도 OECD DAC 회원국의 평균(잠정치)인 0.28%의 1/4수준
 - 1인당 ODA: '06년(9.4달러) → '07년(14.4달러)

우리나라의 ODA/GNI 비율 및 1인당 ODA 추이 (순지출 기준)



2. 원조형태별 ODA 규모 (순지출 기준)

원조형태별 ODA 규모 (순지출 기준)

(백만 달러)

양자간 원조	무 상 원 조									유 상 원 조		
	프로젝트 원조	프로그램 원조	기술 협력	인도적 지원	NGO 지원	개발인식 증진	행정 비용	기타	소계	프로젝트 원조	기타	소계
493.47	94.79	39.52	167.03	16.97	6.60	4.50	31.43	0.43	361.28	112.19	20.00	132.19
다자간 원조	출 자 · 출 연									양허성 차관		
	UN 기구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기타	소계				
		IDA	기타	ADB/ADF	AfDB/AfDF							
205.59	47.68	82.33	4.54	41.68		14.96		14.40	205.59	-		

□ 양자간 원조는 유·무상 원조의 동반 실적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31.2% 늘어난 4억 9,347만 달러를 기록

○ 무상원조는 전년대비 약 40% 증가한 3억 6,128만 달러를 기록

- 무상원조 지원 형태별로는 기술협력(46.2%)과 프로젝트 원조(26.2%)가 전체의 72.5%를 차지, 특히 기술협력은 최근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

· 기술협력(백만 달러): '04년(53.83)→'05년(80.16)→'06년(116.78)→'07년(167.03)

○ 유상원조도 전년대비 약 13% 증가한 1억 3,219만 달러를 기록

- 유상원조 규모는 전년대비 1,508만 달러 증가

- '07년 약정(승인)액은 5억 8,420만 달러로 전년(3억 5,922만 달러) 대비 약 63%로 크게 증가하였는 바, 향후 유상원조 지출규모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다자간 원조는 전년대비 159.6% 증가한 2억 559만 달러를 기록

○ 다자간 원조는 세계은행그룹(8,686만 달러)과 지역개발은행(5,664만 달러)에 대한 출자·출연, UN 기구에 대한 출연(4,768만 달러) 등으로 구성

○ '07년 중 세계은행그룹(IDA)에 대한 출자·출연이 다자간 원조 증가의 주요인

- UNPKO(지원액의 4%만 ODA로 인정)에 대한 지원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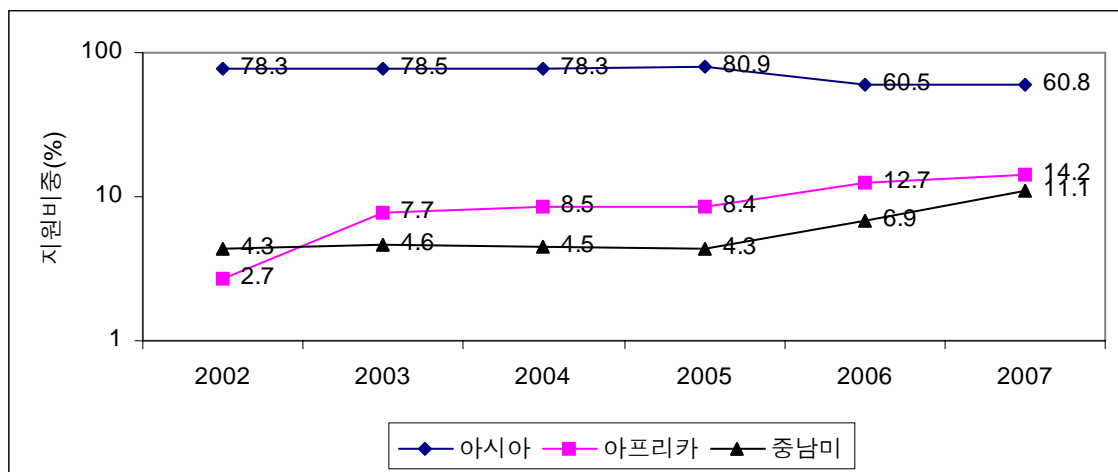
('06년 : 484만 달러 → '07년 : 1,419만 달러)

○ '08년에도 IDB에 대한 출연금 납입(8,667만 달러)이 약정되어 있어, 다자간 원조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

3. 지역별 · 국가별 지원규모 (순지출 기준)

- '07년 전체 양자간 ODA 중 60.8%가 아시아에 지원되었으며, 아프리카(14.2%), 중남미(11.1%) 등이 그 뒤를 이음
- 양자간 ODA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원은 극동아시아(52.7%), 중동(23.5%), 남부 및 중앙아시아(22.1%) 등으로 구성
- 최근 6개년간 양자간 ODA의 아시아 지역 지원비중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지원비중은 점진적으로 상승

양자간 ODA의 주요 지역별 지원비중 변화추이 (순지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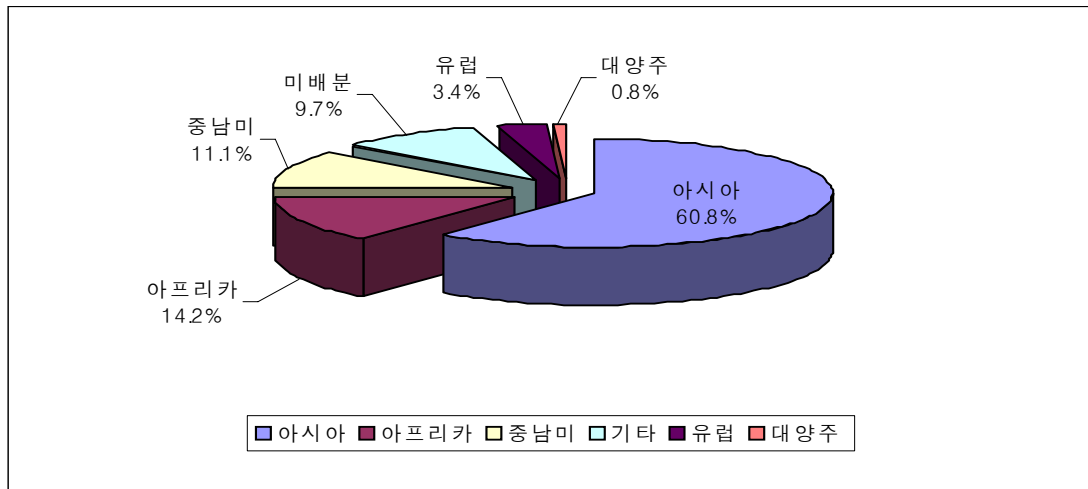
- 무상원조는 아시아(60.3%), 아프리카(14.4%), 중남미(10.3%)에 중점 지원되었으며, 유상원조도 아시아(62.2%), 아프리카(13.8%), 중남미(13.3%) 순으로 지원

양자간 ODA의 지역별 지원규모 (순지출 기준)

(백만 달러)

구 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대양주	미배분	합계
무상원조	217.8	51.9	37.1	2.3	4.3	47.9	361.3
유상원조	82.2	18.3	17.5	14.7	△0.6	-	132.2
합 계	300.1	70.2	54.7	17.0	3.7	47.9	493.5

양자간 ODA의 지역별 지원비중 (순지출 기준)



- 국가별로는 이라크에 대한 지원이 전체 양자간 ODA의 10.9% (양자간 무상원조의 14.8%)를 차지하였고,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
- 이라크는 2003년 3월 전쟁발발에 따른 무상원조 증가에 힘입어 2003년 이후 우리나라 원조의 최대 수혜국을 차지
- 상위 10개국에 대한 양자간 ODA 비중은 53.1%로 전년(54.2%)과 비슷한 수준('05년 : 72.2% → '06년 : 54.2% → '07년 : 53.1%)

양자간 ODA의 국가별 지원규모 (순지출 기준)

(백만 달러)

순위	국 가	무상원조	유상원조	합계	
				금액	비중(%)
1	이라크	53.6	-	53.6	10.9
2	캄보디아	10.6	24.6	35.3	7.2
3	스리랑카	13.8	19.5	33.3	6.7
4	인도네시아	16.5	12.3	28.8	5.8
5	필리핀	9.3	18.9	28.2	5.7
6	베트남	26.4	△1.7	24.7	5.0
7	라오스	8.7	9.2	17.9	3.6
8	앙골라	0.2	17.2	17.4	3.5
9	몽골	9.8	3.1	12.9	2.6
10	페루	10.2	-	10.2	2.1
상위 10개국 소계		159.2	103.0	262.2	53.1
기타 117개국 소계		139.7	29.1	168.9	34.2
국 별 배 분 불 능		62.4	-	62.4	12.6
총 합계		361.3	132.2	493.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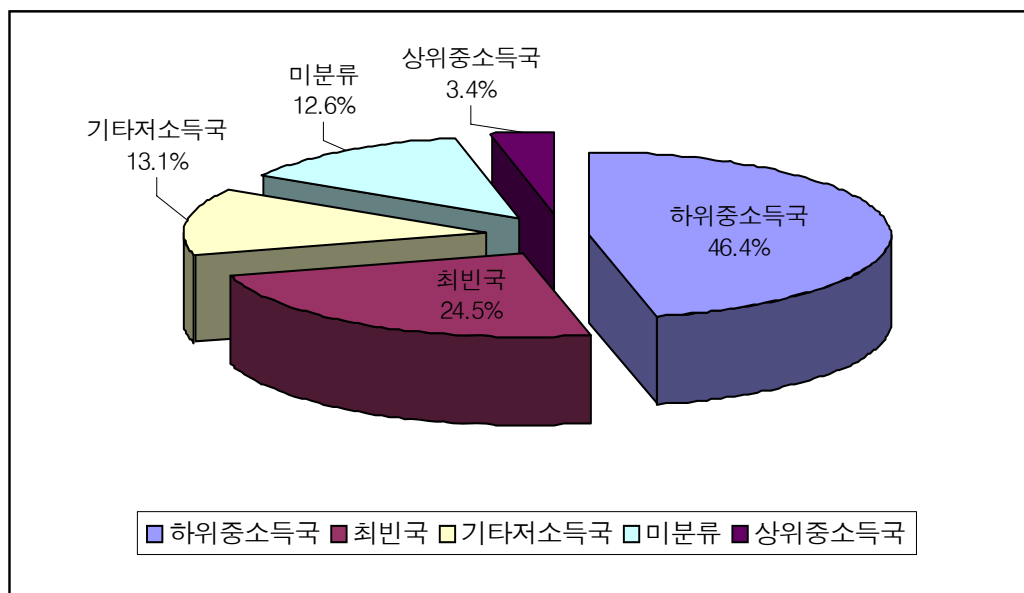
- 소득그룹별로는 하위중소득국(LMIC)에 양자간 ODA의 46.4%가 지원되었고 최빈국(LDC)에는 24.5%가 지원됨
- 전년과 비교하여 최빈국 비중은 동일하나, 하위중소득국 비중은 3.0% 포인트 감소하고 상위중소득국과 기타 저소득국비중은 각각 2.0% 및 0.2% 포인트씩 증가함

양자간 ODA의 소득그룹별 지원규모 (순지출 기준)

(백만 달러)

구 분	최빈국 (UN지정)	기타 저소득국 (1인당 GNI <825달러)	하위 중소득국 (≤3,255달러)	상위 중소득국 (≤10,065달러)	미분류	합계
무상원조	64.9	58.8	160.7	14.4	62.4	361.3
유상원조	56.1	5.6	68.0	2.5	-	132.2
합 계	121.0	64.4	228.8	16.9	62.4	4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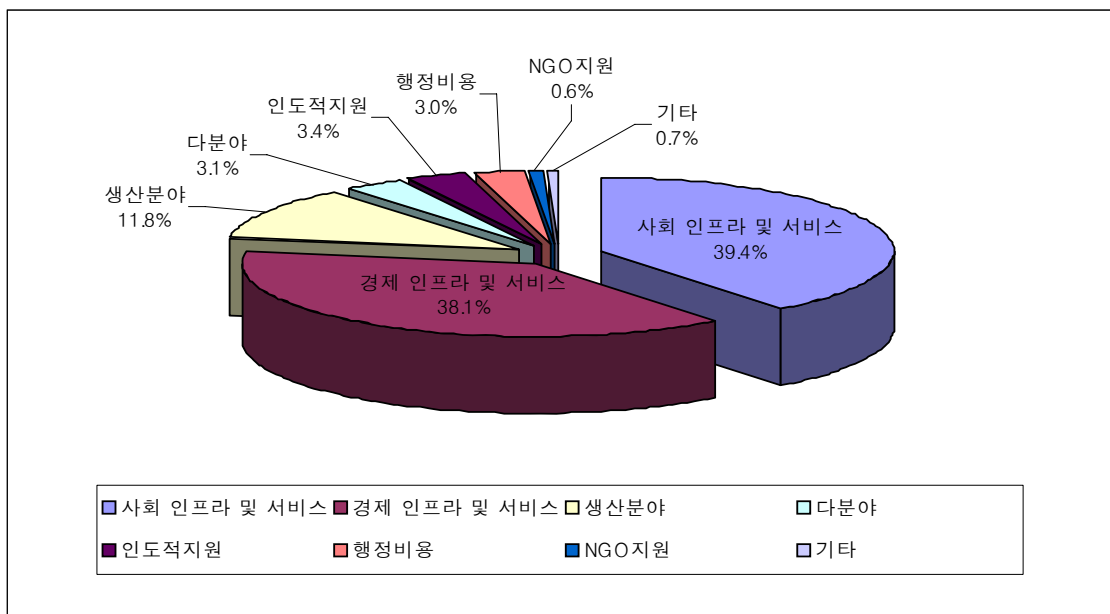
양자간 ODA의 소득그룹별 지원비중 (순지출 기준)



4. 분야별 지원규모 (약정 기준)

- 양자간 ODA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 (39.4%)와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 (38.1%)에 대한 지원이 전체의 77.5%를 차지
 -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서는 교육부문이 32.7%(1억 3,601만불)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식수공급 및 위생,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보건부문이 그 뒤를 이음
 -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서는 교통부문이 58.6%(2억 3,589만불)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통신, 에너지부문이 그 다음 순
 - 생산 분야는 농업·임업·수산업 부문 등을 중심으로 1억 2,434만 달러가 지원되었으며, 인도적 지원에는 3,551만 달러가 지원됨

양자간 ODA의 분야별 지원비중 (약정 기준)



5. 구속성 여부별 지원규모 (약정 기준)

□ 2007년 양자간 ODA의 비구속성(Untied) 원조 비율은 24.7%로 전년 (1.9%)대비 대폭 증가

- 유상차관 현지화 소요비용의 비구속성 분류, 유상원조 최초의 비구속성 원조 지원(마다가스카르, 1,412만 달러), 무상원조의 비구속성 원조 단계적 확대 정책에 따른 비구속성 원조 승인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체 양자간 ODA 비구속성 원조비율 대폭 증가

구속성 여부에 따른 양자간 ODA 지원규모 (약정액 기준)

(백만 달러)

구 분		2006		200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양자간 ODA*	비구속성	10.0	1.9	199.7	24.7
	구속성	514.7	98.1	608.8	75.3
	총 계	524.7	100.0	808.6	100.0

* 기술협력 및 행정비용 제외